

전남도, 친환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인증경영체 최다

전국서 18% 차지... 2년 연속 최다 융복합 강화사업 등 용자금 지원 연말까지 인증경영체 확대 목표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5월 말 현재 371개소로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유지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2114개로, 전남이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336개, 경북 233개, 경기 212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2차 제조 가공, 3차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최근 2년간 평균 4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영체다.

인증을 바라는 경영체는 시군 농업 부서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남도청 전경.

터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경영체의 기초 역량과 산업 기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지역사회와 자원의 연계·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농식품부가 선정한다.

인증경영체로 선정되면 1대1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남도장터·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신제품 개발 등 융복합 강화사업을 비롯해 용자금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운영 활성화와 생산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복권기금 15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와 폭염, 장마 등으로 체험활동이 중단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에 인증경영체에서 만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다.

여기에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s://jnmall.kr/)에 '6차산업 기획관'을 구축, 도내 218개 인증경영체의 4236개 제품을 입점시켜 연간 3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420개소까지 늘릴 계획으로, 농가소득 창출과 활력 증진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농촌자원의 6차산업화로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과 치유 중심 체험관광 상품의 판로를 확대해 농가소득이 늘도록 하고,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구급차 운용실태 합동점검

광주광역시가 구급차 운용 실태를 일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자치구·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가 합동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 의료장비·의약품·시설 및 인력기준 등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구급차 224대(의료기관 159대, 소방서 30대, 보건소 8대, 교도서 1대, 응급환자이송업 26대)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비 등 장비·인력 기준 준수 구급차 용도의 사용 여부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인력 이중 등록 여부 신고(허가) 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3년간 보존 여부 등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영양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영양군은 제27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 및 영양군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수비면 수하리 생태관보전지역 일원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였다.

이 날 행사는 수비면 수하리 생태관보전지역 내 국가생태탐방로 트레킹과 자연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숨은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느낌으로써 앞으로 가꾸고 보전해야 할 영양군의 미래 환경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중기청, 백년가게·소공인 추가선정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 평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1차로 선정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경남에선 각각 각각 6곳이 뽑혔다고 12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통영 원조설렁탕, 창원 북죽집, 남해 재두식당, 창원 마산합포구 대가, 마산족발, 창원 성산구 이덕숙고운한복등 6개소다.

백년소공인은 사천 성일산업, 산청 산청양조장, 김해 운타가마, 고령요, 광명도자기, 청곡요 등 6개소다.

이로써 경남의 백년가게는 103개사, 백년소공인은 53개사로 각각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백년가게는 현지인이 믿고 찾는 숨은 맛집이 많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여수시, 합동 적조방제 훈련 실시

적조 피해 제로화 목표

여수시가 '적조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유관기관 합동 '적조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가두리 밀집지역인 남면 하태 해상에서 펼쳐졌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국립수산물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여수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여해 유기적인 훈련을 이어갔다.

방제 장비로는 어장정화선 황토살포기 2대, 선박 50척, 드론 1대가 동원됐다.

이날 훈련은 주변 해역에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당 100개체 이상

출현해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 참여자들은 '드론'과 '기술 지도도선'으로 적조를 예찰한 즉시 구제물질을 살포하고, 어선을 이용한 수류방제도 실시했다.

특히 외해 발생 시 초동방제(1단계)를 위한 제1선단(20척) 연안 유입 시 집중방제(2단계)를 위한 제2선단(15척) 가두리 주변 유입 시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3단계)를 위한 제3선단(15척)으로 구성하고, 분발 황토 6톤을 살포해 현장감 있는 방제 훈련이 진행됐다.

여수시는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광양시가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양시, 전남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7년 연속 우수기관 '쾌거'

3개 분야 32개 항목 평가 어린이 세무교실 등 운영

광양시는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2021년 전라남도 세정연찬회 개최로 특별상까지 동시 수상해 시상비 9,500만 원(최우수상 7,500만, 특별상 2,000만)과 포상금 700만 원을 받았다.

지난 6월 9일 고흥 선벨리조트에서 열린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에서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이었다.

이번 시상은 2021년 도내 22개 시·군이 추진한 실적을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이다.

광양시는 2021년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개최, 세외수입 분야 연구과제 발표 및 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전년 세정도시로서 위상을 높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토론회 개최, 지방세 비리 방지 예방대책 자체 점검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노력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광양(전남)=김용환 기자 jijaeccom@

부산시, 주한외국공관장 등 초청 팸투어

총 15개국 주요 인사 초대

부산시는 10~11일 양일간 중남미와 아프리카지역가의 주한외국공관장 등을 초청하여 '부산 팸투어'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온두라스·페루 등 중남미 6개국,

잠비아·튀니지 등 아프리카 9개국 등 총 15개국의 주한외국공관장 주요 인사 23명을 초청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핵심 브랜드 홍보에 나선 것이다.

/부산=정병호 기자 metrobusan1@

부산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8월 11일 시행하는 '2022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검정고시는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학력인정 시험으로 해마다 2회씩 시행한다.

원서 접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현장 접수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원서접수처에서 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 워케이션 명소화 사업 본격 추진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남해관광 매력 다변화를 위한 '워케이션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생활인구 유치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업인 스트리밍하우스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의 합성어로, 사무실과 같이 고정된 장소가 아닌 색다른 장소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